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10 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목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신앙을 본받으며 더욱 복된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예비신자 교리 신청 안내**
 * 신청하실 분은 곽광주 예로니모 형제님 (614-214-677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오늘 미사 후 성당에서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 ◆ 주일 미사 전후 본당 안에서는 침묵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교우간 인사와 대화는 친교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구역장께서는 독서 및 봉헌자를 사전에 선발하시어, 미사 전례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홍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 시-1 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614-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 ◆ **성모회 모임**
 - 일시: 11 월 1 일(토) 저녁 6 시
 - 장소: 고로사 자매님 댁 (614)406-0489 4010 Laurel Valley Dr. Powell, OH 43065
- ◆ **친교 준비 봉사자**
 - 10 월 26 일: 이석찬
- ◆ **10 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이호영 구역
- ◆ **2008 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 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5,820 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ishop's Annual Appeal)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주 일 헌 금 | \$494.00 |
| 교 무 금 | \$450.00 |
| BAA | \$300.0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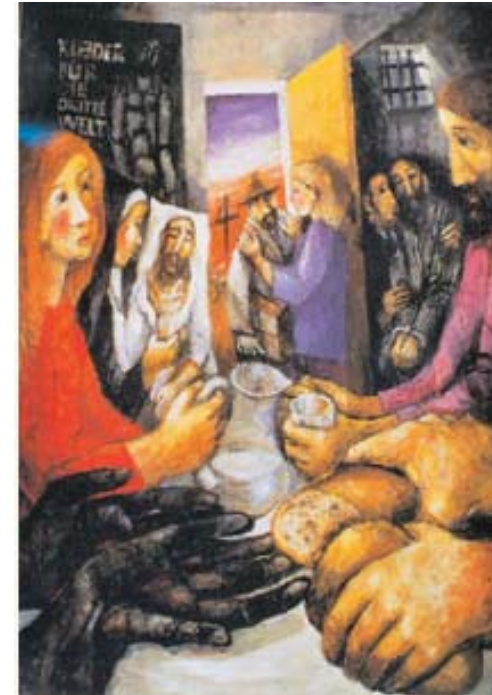
- **교 무 금**: 이진학 김명호 고상식 박석현
- **BAA**: 박석현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30주일 October 26, 2008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지거괴더(Siger Koeder, 1925~), 유화, 작가소장,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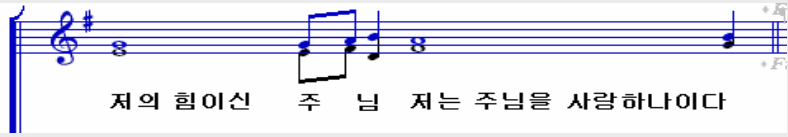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탈출기 22,20-26

“너희가 과부나 고아를 억누른다면, 나는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화답송



제 2 독서 테살로니카1서 1,5-10

“여러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2,34-40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 구역 | 지난 주일 | 합계 |
|-------|--------|-------------------------|
| 김제준 | 단 명 | 2,635단 19명 |
| 이호영 | 100단 명 | 13,308단 77명 |
| 정하상 | 단 명 | 3,485단 77명 |
| 황석두 | 단 명 | 6,895단 71명 |
| 김효임 | 단 명 | 1,171단 29명 |
| 학생 구역 | 단 명 | 10단 2명 |
| 미사중 | 단 명 | 12,109단 10,315명 |
| | 100단 명 | 2/22/04-10/19/08 (244주) |

☞ 총누계: 203,968단 12,688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 | 10월 26일 | 11월 2일 |
|---------|----------------------|-----------------------|
| 전례준비 | 김준승 | 김준식 |
| 해설자 | 신현태 | 곽광주 |
| 독서/봉헌 | 김오경 김경희 정하상 구역 | 서태수 제갈젼마 이호영 구역 |
| 보편지향 기도 | 십자가의 모후 | 평화의 모후 |

오늘의 성가

♫ 입당: 13 ♫ 봉헌: 215
♫ 성체: 160 172 ♫ 파견: 471

생명의 말씀

가장 크고 첫째가는

김영춘 베드로 신부 / 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서 제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또는 “최고”와 같은 수식어가 붙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부님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어떤 때는 한식이 좋지만, 어떤 때는 중식이, 어떤 때는 일식이, 어떤 때는 양식이 좋기도 합니다.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것인데, 딱히 특정 음식을 집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합니다.

본당에서 사목하시는 모 신부님은 몇몇 신자에게 자신이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을 솔직히 말했다가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반 모임에 갈 때마다 자신의 수저 앞에는 늘 그 음식이 올라와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또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질문은 즉각적으로 응대하는 안 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또한 답변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가장”이나 “최고”라는 단정적 표현을 떼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가장”이나 “최고”가 될 수 있기에, 본의 아니게 그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질문을 받습니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표현대로, 그는 예수님의 답변에 시비를 걸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의 계명들이 613가지에 이르렀고, 바리새이들에게도 어떤 계명들이 보다 중요한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저 없이 답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저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의 강렬함을 느낍니다. 율법 교사는 시비를 걸려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한 술 더 떠서 “가장 크고”에 덧붙여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은 당시 율법의 613가지 계명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이 둘째로 꼽으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는 율법 교사의 함정을 파놓은 질문에 빗대어, 시비 거리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당시의 수많은 계명은 모두 제쳐 놓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훨씬 중요하고 큰 계명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는 예수님의 표현은 사랑이 모든 계명과 가르침의 근본임을 극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은 사랑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자 정체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그리고 “최상의” 계명으로 꼽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들 자신의 삶에서도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최상의”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반성해 봅니다.